

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

| 요약 |

-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부진을 지속
 - 2023년(1~9월 누계) 대중국 수출은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.3% 감소
-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구조 요인 ①)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·중 경쟁력 격차 축소
 - 적극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 상승
 - 한·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로 한국산 중간재 투입률 하락
-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구조 요인 ②)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
 -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015년 10.9%에서 2023년 6.2%로 하락
 - 특히 디스플레이, 전자, 석유정제 등의 품목에서 한국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짐.
-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수요 요인 ①) 중국 경기 회복 지연
 -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지속
-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수요 요인 ②) 글로벌 IT 경기 부진
 -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주력 IT 품목이 특히 부진
-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
 - 대중국 수출 부진 고착화에 대비하여 대응 방안 모색 필요
- 향후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가 중요 과제로 부각
 -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
 -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필요

■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부진을 지속

- 2분기 들어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입이 감소 전환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하였으나,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부진
 - 2022년 2분기에 대중국 수출이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3년 1~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.3% 감소
 -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고조
-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중 수입 비중은 변화가 미미한 데 반해,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감소세가 뚜렷
 - 한국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26.8%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19.7%까지 감소한 반면, 수입은 20% 내외를 유지
 - 반면,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2015년 10.9%에서 2023년 6.2%까지 감소하여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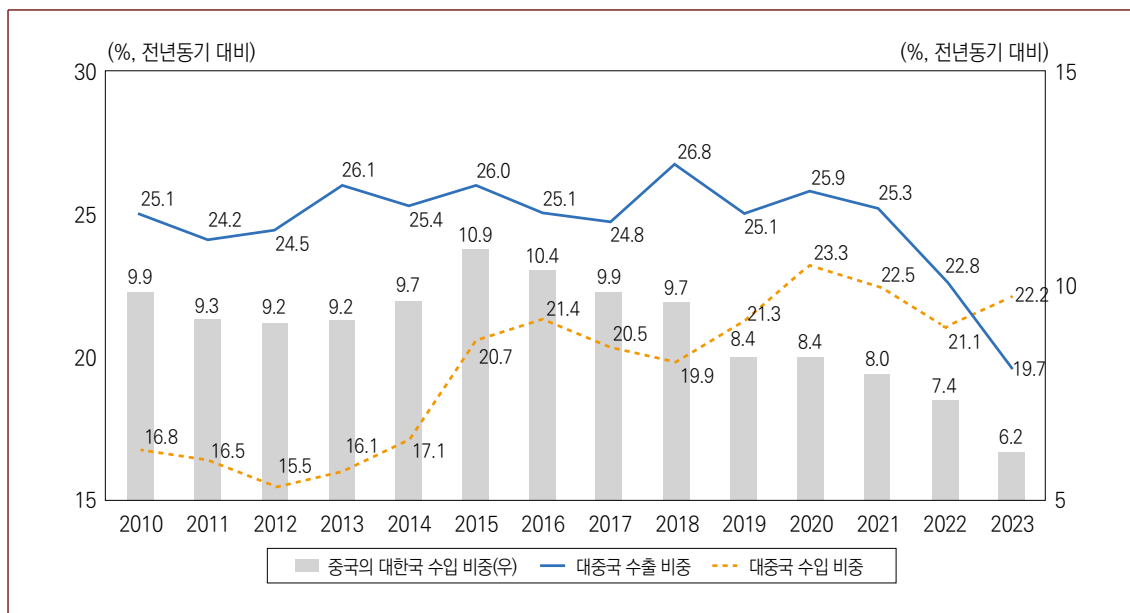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최근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

단위: %(전년동기 대비), 억 달러

	분기	수출		수입		무역수지
		증가율	전체 수출 대비 비중	증가율	전체 수입 대비 비중	
2021	1	25.1	24.9	28.1	22.5	57.3
	2	22.8	25.3	22.8	22.7	59.0
	3	19.8	25.4	30.3	22.1	70.9
	4	24.2	25.5	28.2	22.9	55.5
2022	1	15.5	24.3	18.1	20.4	58.4
	2	-1.0	22.2	21.3	22.3	-16.8
	3	-5.0	22.8	15.4	20.8	-3.3
	4	-22.9	21.8	-5.4	21.0	-26.2
2023	1	-29.7	19.5	3.1	21.5	-77.8
	2	-22.2	19.6	-12.3	22.6	-53.6
	3	-20.8	20.0	-15.0	22.6	-25.6

자료: 무역협회.

〈그림 1〉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



자료: 무역협회.

주: 2023년은 1~8월 누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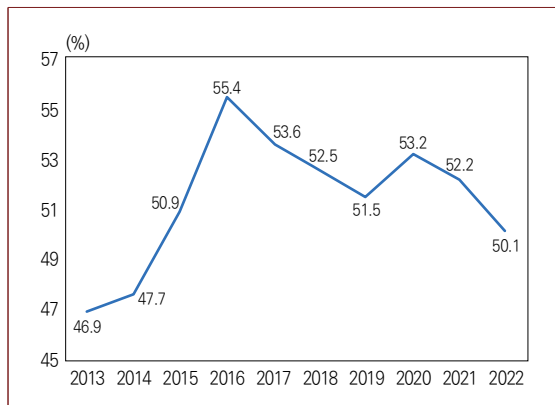
■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구조 요인 ①)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·중 경쟁력 격차 축소

-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
 - 중국은 질적 성장으로 성장전략 전환을 도모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
 - 2014년 중고속 성장 및 내수 증진을 기조로 하는 ‘신창타이(新常态)’를 선언, 2015년 ‘중국 제조 2025’를 발표¹⁾, 2023년 2월에는 ‘품질강국 2025’를 제시²⁾
 -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 노력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
- 중국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은 축소
 -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6년 55.4%에서 2022년 50.1%까지 하락
 - 중국 중간재 수입에서 대세계와 대한민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

1) 중국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10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정보기술, 우주항공, 바이오의약 등 미래 주요 산업에서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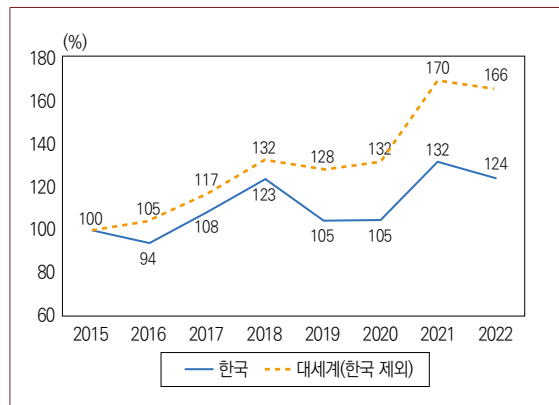
2) ‘큰 경제’를 ‘강한 경제’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‘중국 제조 2025’와 유사.

〈그림 2〉 중국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



자료: UN comtrade.

〈그림 3〉 중국 중간재 수입 추이(2015=100)



자료: UN comtrade 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.

주: 중간재 수입액을 2015=100으로 지수화하여 비교.

- 실증분석 결과,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³⁾
 -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% 상승하면,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약 0.77% 감소
 - 중국 자급률의 상승 가운데 부가가치율 증가와 자국산 중간재 증가에 따른 계수의 크기는 각각 -0.39 및 -0.38로 유사
 - 한편, 중국 외 타국산 중간재 수입투입 비중이 1% 증가하면, 한국산 중간재 수입투입계수는 약 0.41% 감소
 -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확대 영향이 -1에 가깝게 추정된 것은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 확대가 한국산 중간재 수입을 크게 대체함을 의미

〈표 2〉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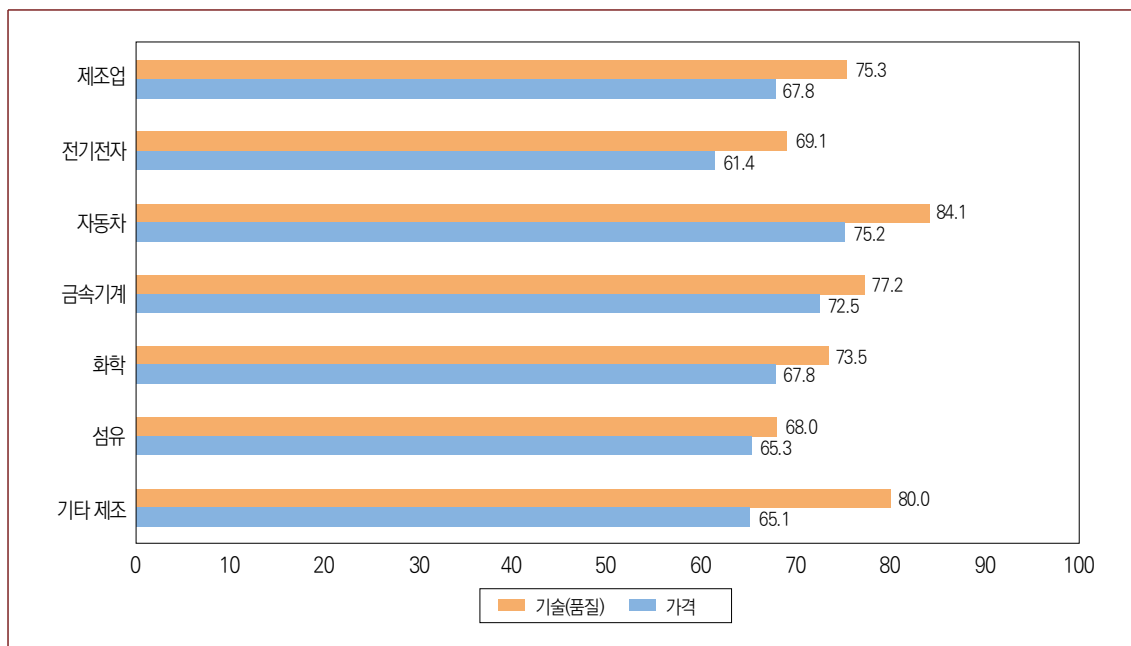
	모형(1) (수준변수)	모형(2) (차분변수)
중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	-0.3881*** (0.0000)	-0.3768*** (0.0000)
중국의 자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	-0.3823*** (0.000)	-0.3730*** (0.0005)
중국의 타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	-0.4078*** (0.0000)	-0.3924*** (0.0000)

자료: ADB의 국제산업연관표(ADB MRIO)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.

주: ***은 1%, **은 5%, *은 10%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.

3)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간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추정, 각 계수들은 나머지 조건이 동일할 때, 중국의 부가가치나 자국 및 제3국산 투입 비중이 증가할 때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.

〈그림 4〉 중국산 중간재의 기술 및 가격수준 조사 결과(한국=100%)



자료: 산업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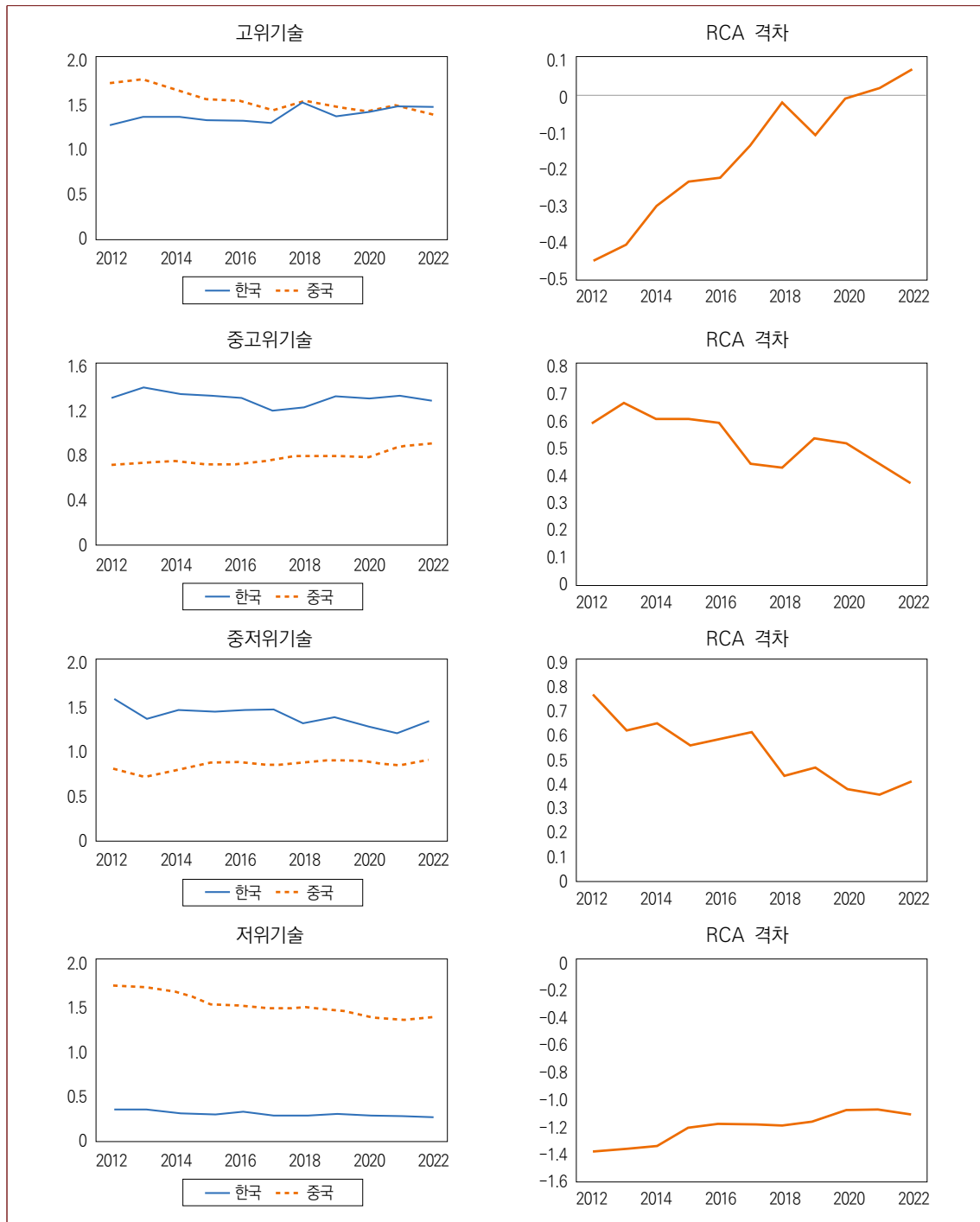
- 산업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의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를 뒷받침⁴⁾
 - 중국 내 기업이 중국산 중간재의 기술(품질)수준은 한국산보다 낮게 평가하지만,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
- 한국과 중국 간 경쟁력 격차 축소⁵⁾
 - 중고위기술,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, 그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
 - 중고위(석유화학, 정밀화학, 기계, 자동차 등), 중저위(석유정제, 고무, 플라스틱, 조선 등) 기술산업에서 양국 RCA 격차 축소
 - IT,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한·중 모두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, 2022년 기준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로 확인
 - 고위(반도체, 디스플레이, 가전 등 주로 IT 제품): 양국의 RCA 격차 확대,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보유

4)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여부를 파악하고자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5일~6월 28일에 걸쳐 제조업 6개 업종, 총 193개 업체를 조사.

5) 현시비교우위지수(RCA, Relative Competitive Advantage Index)는 세계시장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 국가의 수출에서 동일 품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활용. RCA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에서 그 국가의 수출이 세계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.

- 한국이 전체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있으나, 고위기술 산업에서 중국 자체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고, 중위기술 산업에서 양국 간 경쟁력 격차가 축소
-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

〈그림 5〉 한·중 기술수준별 RCA 및 양국 간 RCA 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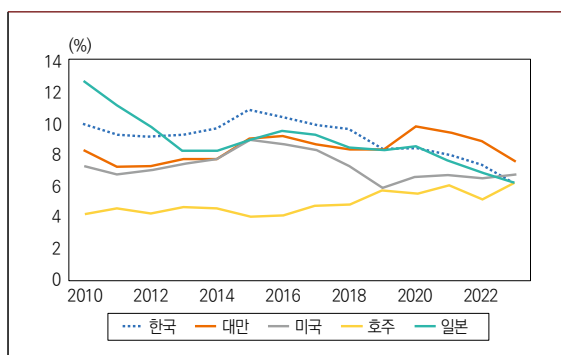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(ISTANS).

■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구조 요인 ②)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

-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점진적 하락세
 -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.9%에서 2023년 6.2%로 4.7%포인트 축소되어 동 기간 주요국과 비교하여 축소 폭이 큰 편
 - 반면 동 기간 대만과 미국은 비중 변화가 미미하고, 호주는 비중 확대
 - 수입대상국 순위로 보면, 한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대만에 1위를 내주었고, 2023년에는 5위로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부진
- 주요국과 비교해보면,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약화
 -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고위기술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으며, 중저위기술 산업 수출 비중의 축소 폭은 상대적으로 큰 편

〈그림 6〉 중국 수입에서 국가별 비중 변화



자료: 무역협회.

〈표 3〉 중국의 수입대상국 순위

단위: 억 달러, %

순위	2022년 1~8월		2023년 1~8월		
	국가	수입액	국가	수입액	증가율
1	대만	1,623	대만	1,270	-21.8
2	한국	1,367	미국	1,120	-4.9
3	일본	1,248	호주	1,042	9.0
4	미국	1,178	일본	1,040	-16.6
5	호주	955	한국	1,034	-24.4

자료: 무역협회.

〈표 4〉 중국 수입시장에서 국가별 주요 산업의 점유율 비교(기술수준별)

	한국			아세안			미국			일본		
	2010	2021	증감	2010	2021	증감	2010	2021	증감	2010	2021	증감
고위기술	17.2	15.2	-2.0	17.7	19.4	1.7	7.0	5.6	-1.4	11.6	6.8	-4.8
- 디스플레이	39.9	20.3	-19.6	0.3	2.6	2.3	0.1	0.2	0.1	9.3	12.1	2.8
- 전자	29.5	14.3	-15.2	4.0	23.1	19.1	1.9	2.9	1.0	36.4	21.4	-15
중고위기술	11.3	10.4	-0.9	6.3	11.4	5.1	9.0	9.5	0.5	23.6	19.6	-4.0
- 자동차	8.3	2.0	-6.3	0.6	3.0	2.4	7.7	2.0	-5.7	32.1	19.2	-12.9
- 기타 전자부품	12.6	7.6	-5.0	9.6	14.5	4.9	2.5	15.5	13	23.4	24.4	1.0
중저위기술	12.5	7.5	-5.0	14.4	18.5	4.1	5.0	6.2	1.2	18.0	8.7	-9.3
- 석유정제	23.4	9.2	-14.2	29.3	23.1	-6.2	2.5	14.2	11.7	6.9	1.4	-5.5
- 철강	17.5	8.3	-9.2	1.3	39.0	37.7	2.4	0.8	-1.6	37.3	13.8	-23.5
저위기술	4.5	1.8	-2.7	16.7	20.7	4.0	12.1	7.7	-4.4	7.9	3.2	-4.7

자료: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(ISTANS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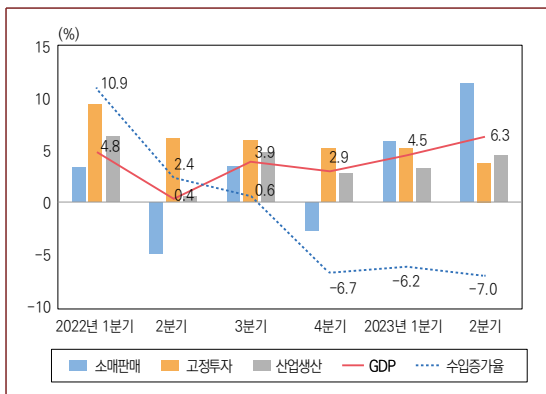
주: 중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액에서 중국의 국가별, 산업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기 8개 산업은 2010년 대비 점유율 감소 5%포인트 이상인 산업만 정리.

- 디스플레이, 전지, 자동차, 석유정제 등의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을 시사
- 특히 전지와 철강은 아세안(ASEAN)에, 석유정제는 미국에 점유율 역전을 허용
- 이는 중국 내 국가 간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의미

■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수요 요인 ①) 중국 경기 회복 지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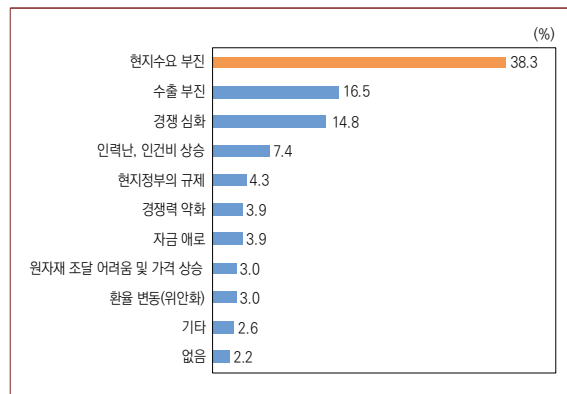
-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
 - 2023년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.3%로 예상보다 더딘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
 - 중국의 소매판매, 고정투자,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증가세가 둔화
- 중국의 수입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어 대중국 수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
 -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2022년 4분기 -6.7%로 감소 전환한 후 2023년 2분기 -7.0%로 감소세를 지속
 -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국 진출 기업이 직면한 경영애로사항으로 현지수요 부진(38.3%)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⁶⁾
 - 최근에는 중국 내수경기 위축,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우려로 이전처럼 큰 폭의 대중국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
〈그림 7〉 중국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



자료: 중국 경제통계국.

〈그림 8〉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애로사항(3분기)



자료: 산업연구원.

6)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 분기 정기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.

■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: (수요 요인 ②) 글로벌 IT 경기 부진

- 글로벌 IT 경기 부진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였고, 기업의 감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 반등이 크지 않은 상황
 -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에서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 부진은 불가피⁷⁾
 - 2023년 3분기 한국 대중 수출액 314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.4%로 전년동기 대비 약 6.3%포인트 비중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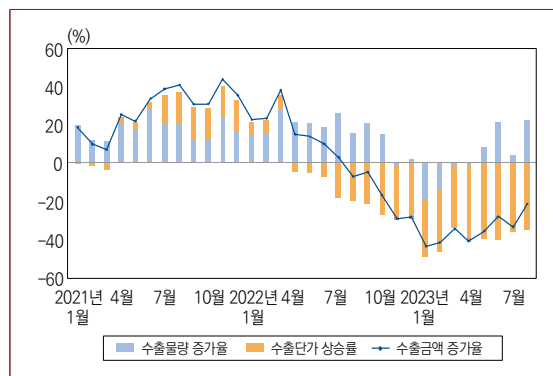
〈표 5〉 글로벌 IT제품 출하량 추이⁸⁾

단위: 백만 대, %

		PC	스마트폰	태블릿
2022년	1분기	80.2	314.5	38.0
	2분기	71.1	287.6	40.3
2023년	1분기	56.9	268.6	30.7
	2분기	61.6	265.3	28.3
증가율	1분기	-29.0	-14.6	-19.1
	2분기	-13.4	-7.8	-29.9

자료: IDC(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).

〈그림 9〉 반도체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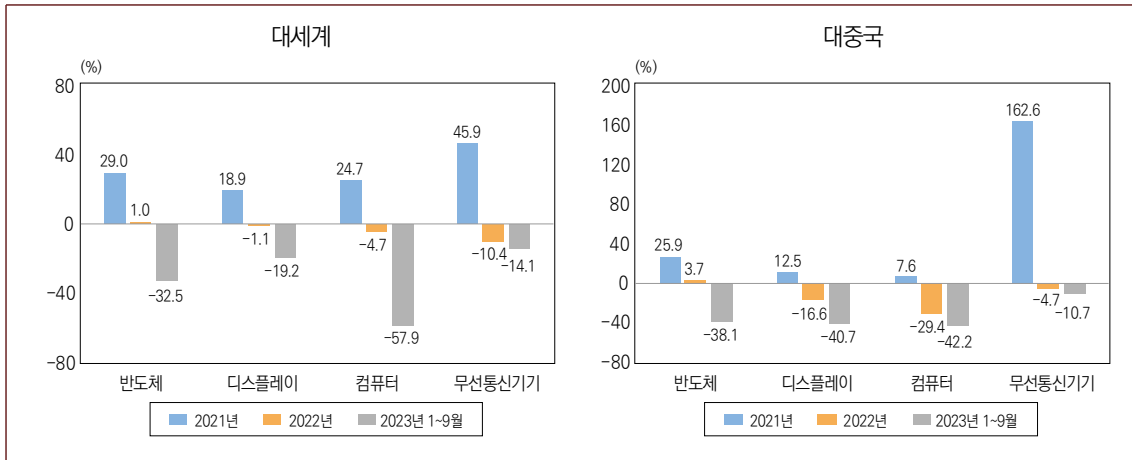
■ 대중국 수출 부진과 글로벌 IT 경기 침체는 밀접한 관련

- 2023년 대세계 수출에서 컴퓨터 -57.9%, 반도체 -32.5%, 디스플레이 -19.2% 등 반도체 및 IT산업 수출 감소가 최근 한국 수출에 영향
 - 대중국 수출에서도 컴퓨터 -42.2%, 디스플레이 -40.7%, 반도체 -38.1% 등 동일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여 IT 경기 침체가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
 - 특히 대중국 수출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인 반도체는 2022년 33.4%에서 2023년 (1~9월 누계) 29.4%로 그 비중이 축소
 - 이는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2023년 (1~9월 누계) 27.8% 감소하는 등 경기적 요인을 받고 있음을 의미

7)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Yole은 2022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30%,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3%를 수요한 것으로 발표.

8)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경기 약세 전망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4.7%, 13.7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, 2024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겠지만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(2023년 8월 기준).

〈그림 10〉 반도체 및 주요 IT제품 수출 추이



자료: 무역협회.

■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⁹⁾

-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2015년까지 대세계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, 중국의 대한국 수입투입에 의존한 중간재 수출분은 지속적으로 감소
 -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세계 투입구조와 한국산 수입투입계수가 감소하면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부(-)의 영향
 - 2016년, 2017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투입계수로 인한 중간재 수출^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미·중 무역마찰로 인한 중국의 수입중간재 수요를 한국이 일부 충당한 결과로 판단
 - 전기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수요가 증가했음에도, 2020년부터 한국산 투입비중이 감소한 영향으로 대한국 수입투입계수의 영향이 부(-)의 방향으로 작용
 - 2022년에는 전기전자 업황 악화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수입투입계수 감소로 인한 수출 변동분이 크게 나타남.
-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 세계 수요 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
 - 분석 결과 등으로 미루어볼 때 기술 요인이 한국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

9) 본 보고서의 귀착지분석 결과는 다음 식에 따라 ① 중국의 대한국 수입투입계수 변화, ② 전 세계 투입구조 변화, ③ 중국 수요 변화, ④ 전 세계 수요 변화로 분해. 다만, 2022년까지 분석이 가능하여 금년 수출 부진 설명에는 한계를 가짐.

$$\begin{aligned}
 \Delta e_r^{kc} &= \Delta A^{kc} [(I-A)_{ct}^{-1} f_{rt}] + A_{t-1}^{kc} \Delta [(I-A)_{ct}^{-1} f_{rt}] \\
 &= \Delta A_{ct}^{kc} [(I-A)_{ct}^{-1} f_{rt}] + A_{t-1}^{kc} [\Delta (I-A)_{ct}^{-1} f_{rt} + (I-A)^{-1} \Delta f_{rt}] \\
 &= \Delta A_{ct}^{kc} [(I-A)_{ct}^{-1} f_{rt}] + A_{t-1}^{kc} \Delta (I-A)^{-1} f_{rt} + A_{t-1}^{kc} (I-A)^{-1} \Delta f_{rt}, \quad \Delta f_{rt} = \Delta f_{rt}^D + \Delta f_{rt}^F
 \end{aligned}$$

여기서, A 는 투입계수행렬, A^{kc} 는 k 국의 c 국에 대한 투입계수, f_{rt} 는 최종수요를 의미.

〈그림 11〉 귀착지분석 요인 분해 분석 결과



자료: ADB의 국제산업연관표(ADB MRIO)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-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경기의 영향을 받는 수요 요인과 달리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
- 따라서,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,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
- 최근에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수요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
 - 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,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
 - 수요 요인 ① 및 ②와 같이 최근 중국 경기 회복 지연, 글로벌 IT 경기 부진 등 경기적 요인으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
 -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확인되고, 중국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으로 IT 경기가 개선될 경우 수출 회복이 기대

■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

-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
 - 그동안 유지했던 수직 분업화 구조가 깨지면서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중국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금률 상승에 대응할 필요
 - 고기술,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수출 품목을 육성하여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
 - 예를 들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신산업 분야 수입수요 증가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
-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도 중요
 - 중국이 중요한 수출시장임은 변화가 없으나,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
 -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 - 따라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를 이용한 공급망을 형성하여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

한정민 동향분석실 | 연구원 | jmhan@kiet.re.kr | 044-287-3291

김정현 동향·통계분석본부 | 전문연구원 | kim@kiet.re.kr | 044-287-3918